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청록집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

조성문
(한양대학교)

Cho, Sung-moon. 2008. A study of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Cheongnokjip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Linguistic Research* 25(2), 67-8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Cheongnokjip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That is, I divide the syllables of poem into onset, nuclear, and coda, then observe which orthographies are used frequently. The study of Cheongnokjip sufficiently obtains a substantial argument in view of the literary theory.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linguistic method. Poetry i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of similarity among sounds. Sounds perceived as similar to one another create acceptable rhythmic pairs. Because sounds are hierarchically arranged in languages, patterns in poetry can reveal the priority order within this hierarchy. So, with respect to the orthographic patterns of Korean, I analyze all of Cheongnokjip's poems as to Mokwol Park, Jihoon Cho, and Doojin Park. At last I find the priority order of Cheongnokjip's poems within sound hierarchy. Most common are syllables with no onset and no coda pairs. With respect to acoustic features, the most frequent syllable utilizes the [+sonorant] feature. This pattern remains consistent over time. **(Hanyang University)**

Keywords Cheongnokjip, poem, syllable structure, orthography, priority order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청록집>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¹⁾ 시어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철자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빈도로 조사하고 확인하여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작품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록집>에 수록된 모든 시가 분석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록집>을 문학적인 입장에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학적 입장에서 <청록집>에 드러난 청록파 시인들의 특성을 비교해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HY-2007-G). 또한 본 논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1) 본 논문은 청록집의 언어학적인 특성을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청록집의 문학적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하지 않는다.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문학적인 측면이 아닌 언어학적 측면에서 청록파 시인들의 특성 및 문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청록집>은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3인의 합동시집으로 1946년 간행되었다. 이 시집은 해방 직후의 이념적 혼란 속에서도 생명 감각과 순수 서정을 탐구한 전통 서정시의 한 중요한 질적 성취로 손꼽힌다. 또한 이 시집은 해방 직후 목적의식을 앞세운 좌익 시단에 맞서 젊은 우익 시인들이 펴낸 첫 작품집이라는 점, 해방 이전의 순수시와 전후 전통 서정시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평가되기도 한다(김기중 1991).

<청록집>은 자연에의 귀의와 친화를 노래하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 또한 지니고 있다. 먼저 박목월은 향토성이 짙은 토속어를 구사하면서 간결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서정적 자아의 애뜻하고 섬세한 내면을 형상화한 점에서 그 변별적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조지훈은 전통문화를 소재로 삼아 민족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한편으로는 절제된 울격미 속에 자연미와 불교적인 선취미를 담아내었다. 박두진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산문적인 문체로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 조화를 노래하였다. 자연을 공통 소재로 하여 이 시집에 나타나는 박목월의 향토성과 조지훈의 고전주의적 정신, 그리고 박두진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청록집> 이후 각 시인의 개성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청록집>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이문걸 1993, 1994, 1995, 최승호 1999, 한홍자 2000 등). 물론 언어학적 분석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이문걸(1988), 박윤주(1992), 오택근(2000), 이상호(2005), 강현국(1983)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소리, 특히 철자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청록집>의 시 세계에 접근하려고 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적 특성 분석은 그 효용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청록집>의 모든 시로 박목월 시 15편, 조지훈 시 12편, 박두진 시 12편을 합해서 총 39편이다. <청록집>은 일제 말기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를 통해 등단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세 시인이 광복 직후인 1946년에 펴낸 3인 공동시집이다. 시집의 이름은 박목월의 시 “청노루”에서 따 왔는데, 이 시집의 출간 이후 이들 세 시인은 문단에서 ‘청록파’라 불리게 되었다. 최근 을유문화사에서 2006년 <청록집> 출간 60주년을 맞이해 초판 영인본과 가로쓰기 편집본을 같이 실은 새 판을 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다시 발간된 박목월 외(2006) 주 텍스트로 삼아 <청록집>의 시를 분석했다. 이 자료의 표기법은 가급적 원전에 따랐으며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현행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 텍스트를 작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원전의 저자 순서대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순으로 구분하였다. 문학계에서는 박목월은 향토적 서정을 노래했고, 조지훈은 민족정서와 전통에의 향수를 담았으며, 박두진은 시대적인 고난과 절망을 불멸의 생명력으로 초극하려고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시는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가운데 자연의 새로운 발견을 시적 중심 소재로 삼는 공통된 시풍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학계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로 세 시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본 연구와 같은 언어학적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함께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절을 중심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을 하여 철자적 빈도를 통해 시어의 소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인의 작품을 평가하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언어학적 특성 중 가장 미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절음의 특성을 분석의 중점으로 삼았다. 초성과 종성에는 어떤 자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성에는 어떤 모음이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록집>의 경향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코퍼스를 활용하지 않았다. 모든 빈도 조사는 연구자가 주 텍스트를 분석하여 직접 수작업으로 실시하였다. 박목월 외(2006)의 모든 시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빈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오류를 없애기 위해 분석이 끝난 후에 2차례 확인 조사를 하였다.²⁾

3. 작가별 분석

<청록집>은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순으로 작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분석도 원전에 제시된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3.1 박목월

여기에서는 박목월의 작품을 분석한다. <청록집>에 실린 박목월의 시는 총 15편이다. 총 연 수는 174개고, 한 편당 평균 연 수는 11.6개다. 총 음절 수는 1,318개,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87.9개다.

우선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철자의 빈도 조사 이외에 단어의 통계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말소리의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 박목월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74	154	107	128	77	44	120	291	58	29
비율(%)	13.2	11.7	8.1	9.7	5.8	3.3	9.1	22.1	4.4	2.2
	ㅋ	ㅌ	ㅍ	ㅎ	ㅍ	ㅊ	ㅍ	ㅍ	ㅍ	합계
수	2	10	17	58	19	8	4	12	6	1318
비율(%)	0.2	0.8	1.3	4.4	1.4	0.6	0.3	0.9	0.5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1,318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291개와 2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³⁾ 이것은 초성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그만큼 초성이 없는 시어를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초성은 ‘ㄱ, ㄴ’ 순이었다. 반면에 ‘ㅋ, ㅌ, ㅍ, ㅎ, ㅍ, ㅊ, ㅍ, ㅍ, ㅍ’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박목월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ㅑ	ㅓ	ㅡ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수	182	38	46	187	126	391	109	136	13	5	5
비율(%)	13.8	2.9	3.5	14.2	9.6	29.7	8.3	10.3	1.0	0.4	0.4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합계	
수	44	6	5	2	12	7	4	0	0	0	1318
비율(%)	3.3	0.5	0.4	0.2	0.9	0.5	0.3	0	0	0	

중성에서는 총 1,318개 중 ‘ㅗ’의 수와 비율이 391개와 29.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중성은 ‘ㅡ, ㅣ, ㅛ’ 순이었다. 반면 ‘ㅑ, ㅓ, ㅑ’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ㅑ, ㅓ, ㅑ, ㅕ, ㅗ, ㅛ, ㅜ, ㅠ, ㅑ, ㅓ’ 등이 1% 미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성이 아니다. 다만, 자료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한다. 다른 두 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류 정리하였다.

<표 3> 박목월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40	187	2	157	82	24	24	37	4	7	1	13	1
비율(%)	6.5	30.4	0.3	25.5	13.3	3.9	3.9	6.0	0.7	1.1	0.2	2.1	0.2
	ㅎ	ㅍ	ㅊ	ㅋ	ㅌ	ㅍ	ㅊ	ㅋ	ㅌ	ㅍ	ㅊ	ㅌ	합계
수	6	1	15	0	2	1	4	1	3	1	2	615	
비율(%)	1.0	0.2	2.4	0	0.3	0.2	0.7	0.2	0.5	0.2	0.3		

중성은 총 615개가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6.7%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중성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187개와 30.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ㄹ,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ㄷ, ㅈ, ㅋ,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이 1% 미만의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박목월은 초성이 없는 시어를 주로 선택했고, 선택된 초성도 주로 ‘ㄱ, 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성은 ‘ㄱ, ㄴ, ㄷ, ㄹ’를 중성은 ‘ㄴ, ㄹ, ㅁ’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박목월의 시가 향토성을 드러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중성이 없는 음절의 선택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간접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박목월 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조지훈

이번에는 조지훈의 작품을 분석한다. <청록집>에 실린 조지훈의 시는 총 12편이다. 총 연 수는 172개고, 한 편당 평균 연 수는 14.3개다. 총 음절 수는 1,779개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48.3개다.

먼저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조지훈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87	146	136	197	101	93	151	426	100	49
비율(%)	10.5	8.2	7.7	11.1	5.7	5.2	8.5	24.0	5.6	2.8
	ㅋ	ㅌ	ㅍ	ㅎ	ㅍ	ㅊ	ㅋ	ㅌ	ㅍ	합계
수	2	5	29	94	38	10	5	9	1	1779
비율(%)	0.1	0.3	1.6	5.3	2.1	0.6	0.3	0.5	0.1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1,779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426개와 24.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이것은 초성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그만큼 초성이 없는 시어를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초성은 ‘ㄹ, ㄱ’ 순이었다. 반면에 ‘ㅋ, ㅌ, ㅍ, ㅃ, ㅆ, ㅈ’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조지훈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ㅑ	ㅓ	ㅡ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수	300	73	54	236	159	392	167	242	18	7	23	
비율(%)	16.9	4.1	3.0	13.3	8.9	22.0	9.4	13.6	1.0	0.4	1.3	
	ㅋ	ㅌ	ㅍ	ㅃ	ㅆ	ㅈ	ㅊ	ㅅ	ㅈ	ㅊ	ㅅ	합계
수	63	19	0	3	5	15	3	0	0	0	0	1779
비율(%)	3.5	1.1	0	0.2	0.3	0.8	0.2	0	0	0		

중성에서는 총 1,779개 중 ‘ㅗ’의 수와 비율이 392개와 22.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중성은 ‘ㅣ, ㅜ, ㅡ’ 순이었다. 반면 ‘ㅛ, ㅓ, ㅑ, ㅅ’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ㅕ, ㅗ, ㅛ, ㅜ, ㅠ’가 1% 미만의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조지훈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48	233	10	197	80	18	20	69	6	26	0	8	13
비율(%)	6.3	30.7	1.3	25.9	10.5	2.4	2.6	9.1	0.8	3.4	0	1.1	1.7
	ㅎ	ㅍ	ㅆ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합계
수	1	2	8	0	2	3	5	0	4	1	6		760
비율(%)	0.1	0.3	1.1	0	0.3	0.4	0.7	0	0.5	0.1	0.8		

중성은 총 760개가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7%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중성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233개와 30.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ㅋ, ㅌ, ㅍ’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ㅈ, ㅎ, ㅍ, ㅆ, ㅈ, ㅊ, ㅅ’이 1% 미만의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조지훈은 초성이 없는 시어를 주로 선택했고, 선택된 초성도 주로 ‘ㄹ, 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성은 ‘ㅏ, ㅣ, ㅑ, ㅓ’를 중성은 ‘ㄴ, ㄹ, ㅁ’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조지훈의 시가 전통문화에 근거한 불교적 선취미를 드러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중성이 없는 음절의 선택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절제된 율격미를 전달했다는 조지훈 시의 특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박두진

마지막으로 박두진의 작품을 분석한다. <청록집>에 실린 박두진의 시는 총 12편이다. 총 연 수는 260개고, 한 편당 평균 연 수는 21.7개다. 총 음절 수는 3,513개,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292.8개다.

우선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박두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350	357	300	334	181	179	293	874	168	65
비율(%)	10.0	10.2	8.5	9.5	5.2	5.1	8.3	24.9	4.8	1.9
	ㅋ	ㅌ	ㅍ	ㅎ	ㅍ	ㅊ	ㅍ	ㅍ	ㅍ	합계
수	7	19	59	190	56	43	14	13	11	3513
비율(%)	0.2	0.5	1.7	5.4	1.6	1.2	0.4	0.4	0.3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3,513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874개와 24.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초성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그만큼 초성이 없는 시어를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초성은 ‘ㄴ, ㄱ’ 순이었다. 반면에 ‘ㅋ, ㅌ, ㅍ, ㅊ, ㅍ’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박두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ㅣ
수	526	129	119	459	371	825	326	418	22	19	36
비율(%)	15.0	3.7	3.4	13.1	10.6	23.5	9.3	11.9	0.6	0.5	1.0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ㅣ	합계
수	134	27	2	3	18	76	2	0	0	1	3513
비율(%)	3.8	0.8	0.1	0.1	0.5	2.2	0.1	0	0	0.03	

중성에서는 총 3,513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825개와 23.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중성은 ‘ㅣ, ㅡ, ㅑ’ 순이었다. 반면 ‘ㅞ, ㅟ’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ㄱ, ㄴ,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ㅑ, ㅒ, ㅓ, ㅔ, ㅕ’가 1% 미만의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박두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ㅑ
수	96	446	11	381	143	34	71	131	15	35	0	25	20
비율(%)	6.4	29.9	0.7	25.5	9.6	2.3	4.8	8.8	1.0	2.4	0	1.7	1.3
	ㅎ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합계	
수	8	4	37	0	2	12	12	0	2	1	6	1492	
비율(%)	0.5	0.3	2.5	0	0.1	0.8	0.8	0	0.1	0.1	0.4		

중성은 총 1,492개가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5%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중성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446개와 29.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이 381개와 25.5%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ㅋ, ㅌ, ㅍ’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ㄷ, ㅎ,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ㅛ’이 1% 미만의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박두진은 초성이 없는 시어를 주로 선택했고, 선택된 초성도 주로 ‘ㄴ, 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성은 ‘ㅏ, ㅣ, ㅡ, ㅑ’를, 중성은 ‘ㄴ, ㄹ’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박두진의 시가 기독교적 이미지를 드러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시 한 편당 평균 음절수가 292.8개로 다른 시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에서 산문적 문체를 드러냈다는 박두진 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종합

지금까지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순으로 <청록집>의 작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 <청록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10>은 청록집의 총 시, 연, 음절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청록집의 시, 연 및 음절 수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합계 및 평균
시(A)	15	12	12	39
연(B)	174	172	260	606
음절(C)	1318	1779	3513	6610
B / A	11.6	14.3	21.7	15.5
C / A	87.9	148.3	292.8	169.5

<청록집>은 총 39편의 시로 구성되었다. 박목월은 15편, 조지훈은 12편, 박두진은 12편이다. 총 연 수는 606개고, 한 편당 평균 연 수는 15.5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연 수와 한 편당 평균 연 수가 박목월은 174개와 11.6개, 조지훈은 172개와 14.3개, 박두진은 260개와 21.7개다. 이것은 시 편수에 비해 박두진이 두 시인보다 더 많은 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박두진의 작품이 주로 산문시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총 음절 수는 6,610개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69.5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음절 수와 한 편당 평균 음절 수가 박목월은 1,318개와 87.9개, 조지훈은 1,779개와 148.3개, 박두진은 3,513개와 292.8개다. 연 수와 마찬가지로 박두진이 두 시인에 비해 더 많은 음절을 사용했고, 박목월이 가장 적은 음절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박두진의 작품이 주로 산문시였기 때문이고, 박목월의 작품은 간결하고 선명한 문체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순으로 한 편의 시에 많은 시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청록집의 초성 수와 비율

시인	빈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박목월	수	174	154	107	128	77	44	120	291	58	29
	비율(%)	13.2	11.7	8.1	9.7	5.8	3.3	9.1	22.1	4.4	2.2
조지훈	수	187	146	136	197	101	93	151	426	100	49
	비율(%)	10.5	8.2	7.7	11.1	5.7	5.2	8.5	24.0	5.6	2.8
박두진	수	350	357	300	334	181	179	293	874	168	65
	비율(%)	10.0	10.2	8.5	9.5	5.2	5.1	8.3	24.9	4.8	1.9
전체	수	711	657	543	659	359	316	564	1591	326	143
	비율(%)	10.8	9.9	8.2	10.0	5.4	4.9	8.5	24.1	4.9	2.2

시인	빈도	ㄱ	ㄷ	ㄹ	ㅎ	ㅍ	ㅊ	ㅌ	ㅍ	ㅆ	합계
박목월	수	2	10	17	58	19	8	4	12	6	1318
	비율(%)	0.2	0.8	1.3	4.4	1.4	0.6	0.3	0.9	0.5	
조지훈	수	2	5	29	94	38	10	5	9	1	1779
	비율(%)	0.1	0.3	1.6	5.3	2.1	0.6	0.3	0.5	0.1	
박두진	수	7	19	59	190	56	43	14	13	11	3513
	비율(%)	0.2	0.5	1.7	5.4	1.6	1.2	0.4	0.4	0.3	
전체	수	11	34	105	342	113	61	23	34	18	6610
	비율(%)	0.2	0.5	1.6	5.2	1.7	0.9	0.4	0.5	0.3	

위 표를 보면 세 시인 모두 공통적으로 ‘ㅇ’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봐도 ‘ㅇ’이 24.1%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시어 중 초성이 없는 음절이 많다는 것을 알려 준다.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초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청록파 시인들은 시어의 선택에서 초성이 없는 음절을 선호했다는 점이다. 보통 음운론적으로 음절 초성에는 자음이 꼭 와야 하고, 폐쇄음과 같은 강한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청록파 시인들은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경향의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초성의 선택에서 개별적인 시인의 차이는 발견되었다. 박목월은 ‘ㅇ, ㄱ, ㄴ, ㄷ, ㅌ, ㅍ’ 순, 조지훈은 ‘ㅇ, ㄷ, ㄱ, ㅌ, ㄴ, ㅍ’ 순, 박두진은 ‘ㅇ, ㄴ, ㄱ, ㄷ, ㅌ, ㅍ’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는 ‘ㅇ’ 다음의 빈도순을 보면 알 수 있다. 박목월은 ‘ㄱ’, 조지훈은 ‘ㄷ’, 박두진은 ‘ㄴ’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적인 음절 초성의 특성에 맞는 경향을 보인 시인은 박목월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목월은 폐쇄음 ‘ㄱ’을 주로 선택했지만, 다른 두 시인은 공명성이 높은 유음 ‘ㄷ’과 비음 ‘ㄴ’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의 비율은 보인 것은 ‘ㅇ, ㄱ, ㄷ’이므로 그 차이는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미만의 모습은 박목월과 조지훈은 ‘ㄱ, ㄷ, ㅌ, ㅍ, ㅆ, ㅆ’이었고, 박두진은 ‘ㄱ, ㄷ, ㅌ, ㅆ, ㅆ’이었다. 거의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박두진의 경우 ㅌ의 비율이 1% 이상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 미만의 모습을 보인 것은 ‘ㄱ, ㄷ, ㅌ, ㅍ, ㅆ, ㅆ’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록집>의 경우 음절 초성에서 경음과 격음의 선택이 선호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청록집의 중성 수와 비율

시인	빈도	ㅣ	ㅑ	ㅓ	ㅡ	ㅜ	ㅛ	ㅠ	ㅝ	ㅞ	ㅟ	ㅠ	
박목월	수	182	38	46	187	126	391	109	136	13	5	5	
	비율(%)	13.8	2.9	3.5	14.2	9.6	29.7	8.3	10.3	1.0	0.4	0.4	
조지훈	수	300	73	54	236	159	392	167	242	18	7	23	
	비율(%)	16.9	4.1	3.0	13.3	8.9	22.0	9.4	13.6	1.0	0.4	1.3	
박두진	수	526	129	119	459	371	825	326	418	22	19	36	
	비율(%)	15.0	3.7	3.4	13.1	10.6	23.5	9.3	11.9	0.6	0.5	1.0	
전체	수	1008	240	219	882	656	1608	602	796	53	31	64	
	비율(%)	15.3	3.6	3.3	13.3	9.9	24.3	9.1	12.0	0.8	0.5	1.0	
시인	빈도	ㅣ	ㅑ	ㅓ	ㅡ	ㅜ	ㅛ	ㅠ	ㅝ	ㅞ	ㅟ	ㅠ	합계
박목월	수	44	6	5	2	12	7	4	0	0	0	0	1318
	비율(%)	3.3	0.5	0.4	0.2	0.9	0.5	0.3	0	0	0	0	
조지훈	수	63	19	0	3	5	15	3	0	0	0	0	1779
	비율(%)	3.5	1.1	0	0.2	0.3	0.8	0.2	0	0	0	0	
박두진	수	134	27	2	3	18	76	2	0	0	1	1	3513
	비율(%)	3.8	0.8	0.1	0.1	0.5	2.2	0.1	0	0	0.03	0.03	
전체	수	241	52	7	8	35	98	9	0	0	1	1	6610
	비율(%)	3.7	0.8	0.1	0.1	0.5	1.5	0.1	0	0	0.02	0.02	

위 표를 보면 세 시인 모두 공통적으로 ‘ㅛ’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봐도 ‘ㅛ’가 24.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ㅛ’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 음악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겠다. 저모음은 낭독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중성의 선택에서도 개별적인 시인의 차이는 분명 발견되었다. 박목월은 ‘ㅛ, ㅡ, ㅣ, ㅝ, ㅞ, ㅠ’ 순, 조지훈은 ‘ㅛ, ㅣ, ㅝ, ㅡ, ㅠ, ㅜ’ 순, 박두진은 ‘ㅛ, ㅣ, ㅡ, ㅝ, ㅞ, ㅠ’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는 ‘ㅛ’ 다음의 빈도순을 보면 알 수 있다. 박목월은 ‘ㅡ’를, 조지훈과 박두진은 ‘ㅣ’를 선택한 것이다. 박목월은 평순후설고모음인 ‘ㅡ’를 주로 선택했는데, 이 모음은 국어의 기본모음으로 삼입모음, 매개모음, 조음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정도 박목월의 시풍인 간결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다른 두 시인은 평순전설고모음인 ‘ㅣ’를 선택했는데, 이 모음은 국어에서 구개음화, 움라우트 등 음운변화

의 주체로 작용하는 동화주의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지훈과 박두진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의 비율은 보인 것은 ‘ㄴ, ㄷ, ㄹ, ㄺ’이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전혀 나타나지 않은 모음은 박목월은 ‘ㅞ, ㅟ, ㅠ’, 조지훈은 ‘ㅢ, ㅣ, ㅤ, ㅥ’, 박두진은 ‘ㅞ, ㅟ’였다. 1% 미만의 모습은 박목월은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였고 조지훈은 ‘ㅢ, ㅣ, ㅤ, ㅥ, ㅦ’였고 박두진은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였다. 이중모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시인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ㅞ, ㅟ’이었고, 1% 미만의 모습을 보인 것은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에서 유난히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록집>의 경우 단순모음이 선호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종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청록집의 종성 수와 비율

시인	빈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박목월	수	40	187	2	157	82	24	24	37	4	7	1	13	1
	비율(%)	6.5	30.4	0.3	25.5	13.3	3.9	3.9	6.0	0.7	1.1	0.2	2.1	0.2
조지훈	수	48	233	10	197	80	18	20	69	6	26	0	8	13
	비율(%)	6.3	30.7	1.3	25.9	10.5	2.4	2.6	9.1	0.8	3.4	0	1.1	1.7
박두진	수	96	446	11	381	143	34	71	131	15	35	0	25	20
	비율(%)	6.4	29.9	0.7	25.5	9.6	2.3	4.8	8.8	1.0	2.4	0	1.7	1.3
전체	수	184	866	23	735	305	76	115	237	25	68	1	46	34
	비율(%)	6.4	30.2	0.8	25.6	10.6	2.7	4.0	8.3	0.9	2.4	0.04	1.6	1.2
시인	빈도	ㅎ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합계	
박목월	수	6	1	15	0	2	1	4	1	3	1	2	615	
	비율(%)	1.0	0.2	2.4	0	0.3	0.2	0.7	0.2	0.5	0.2	0.3		
조지훈	수	1	2	8	0	2	3	5	0	4	1	6	760	
	비율(%)	0.1	0.3	1.1	0	0.3	0.4	0.7	0	0.5	0.1	0.8		
박두진	수	8	4	37	0	2	12	12	0	2	1	6	1492	
	비율(%)	0.5	0.3	2.5	0	0.1	0.8	0.8	0	0.1	0.1	0.4		
전체	수	15	7	60	0	6	16	21	1	9	3	14	2867	
	비율(%)	0.5	0.2	2.1	0	0.2	0.6	0.7	0.04	0.3	0.1	0.5		

위 표를 보면 종성은 총 2,867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3.4%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세 시인 모두 공통적으로 ‘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ㄴ’이 30.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는 ‘ㄹ, ㄴ’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ㄴ, ㄹ, ㄴ’은 모두 공명음인데 상위의 빈도를 보였다. ‘ㅇ’까지 합쳐서 이들 공명음의 비율은 무려 74.7%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청록집>은 종성이 없는 음절이 선호되었고, 사용하더라도 음악적 특성을 가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록집>은 그러한 특성에 잘 부합하는 경향의 시어가 선택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성의 선택에서도 개별적인 시인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박목월은 ‘ㄴ, ㄹ, ㄴ, ㄱ, ㅇ’ 순, 조지훈은 ‘ㄴ, ㄹ, ㄴ, ㅇ, ㄱ’ 순, 박두진은 ‘ㄴ, ㄹ, ㄴ, ㅇ, ㄱ’ 순이었다. 구체적인 차이는 ‘ㄱ’과 ‘ㅇ’ 사이의 빈도순을 보면 알 수 있다. 박목월은 ‘ㄱ’을, 조지훈과 박두진은 ‘ㅇ’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박목월이 강한 자음인 연구개폐쇄음을 선호했고, 조지훈과 박두진은 연구개비음을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박목월이 간결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종성이 없는 음절을 주로 선택했고, 선택한 자음도 강한 ‘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소 미미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은 ‘ㄴ, ㄹ, ㄴ’이었다.

반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박목월은 ‘ㄱ’, 조지훈은 ‘ㅋ, ㆁ, ㆁ’, 박두진은 ‘ㅋ, ㆁ, ㆁ’였다. 1% 미만의 모습은 박목월은 ‘ㄷ, ㅅ, ㅋ, ㅍ, ㅈ, ㅊ, ㅌ, ㄷ, ㅌ, ㅍ, ㅍ, ㅍ, ㅍ’이었고, 조지훈은 ‘ㅅ, ㅎ, ㅈ, ㅊ, ㅌ, ㄷ, ㅌ, ㅍ, ㅍ, ㅍ, ㅍ’이었고, 박두진은 ‘ㄷ, ㅋ, ㅎ, ㅈ, ㅊ, ㅌ, ㄷ, ㅌ, ㅍ, ㅍ, ㅍ, ㅍ’이었다. 거의 비슷하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박목월에 비해 조지훈과 박두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ㄱ’이었고, 1% 미만의 모습을 보인 것은 ‘ㄷ, ㅋ, ㅎ, ㅈ, ㅊ, ㅌ, ㄷ, ㅌ, ㅍ, ㅍ, ㅍ, ㅍ’이었다. 이처럼 장애음과 겹자음 음절 말음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청록집>의 언어적 특성을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철자들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세 시인의 작품별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대조해 보았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청록과 시인들이 공통적으로는 분절음의 선택에 있어 비슷한 점이 우세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분석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 시인이 청록과 시인이라는 범주에 묶일 수 있는 특성을 작품에 드러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또한 개별적인 시인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문학적인 분석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않았지만, 박목월이 분절음의 선택에서 다른 두 시인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였다. 초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중성과 종성에서는 조지훈과 박두진이 빈도순

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학계에서 분석하는 시인별 특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박목월의 토속성, 조지훈의 불교성, 박두진의 기독교성은 철자적 특성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다만, 박목월의 경우 간결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기존의 분석을 철자의 빈도 분석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통계적 분석으로 어느 시인이나 어떤 사조의 작품 경향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시인의 문체를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이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의 측면과 그것을 담은 형식의 측면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연구는 그러한 완성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청록집>의 연구를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리, 특히 철자의 층위에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의 처음 시도된 방법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더욱이 다른 시인 및 사조의 자료 및 일반 언어자료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작품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일반 언어자료의 비교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일반 언어자료에서 어떤 소리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현대시 사조의 언어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문학적 성과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국. 1983. “청록집의 어조문제 -목월과 두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학회. pp.55-82.
- 김기중. 1991. “청록파시의 대비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2006. 『청록집』. 을유문화사.
- 박윤주. 1992. “청록집 연구 -초기 청록집 시의 형태적 비교-”. 『선청어문』 3. 서울대 국어교육과. pp.17-32.
- 오택근. 2000. “청록집의 문체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 한국사상문화학회. pp.33-83.
- 이문걸. 1988. “시의 문체론적 고찰 -『청록집』을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4. 새얼어문학회. pp.1-48.
- 이문걸. 1993. “현대시의 상징적 심상에 관한 탐색 -『청록집』을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6. 새얼어문학회. pp.135-178.
- 이문걸. 1994. “『청록집』의 원형적 심상에 관한 연구”. 『새얼어문논집』 7. 새얼어문학회. pp.31-94.
- 이문걸. 1995. “『청록집』의 변용적 심상에 관한 연구”. 『새얼어문논집』 8. 새얼어문학회. pp.71-134.
- 이상호. 2005. “청록파 연구 -《청록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pp.325-351.
- 최승호. 1999.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한국시학연구』 2. 한국시학회. pp.291-337.
- 한홍자. 2000. “청록파의 자연과 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pp.127-149.

조성문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3-791
E-mail: mooni67@hanyang.ac.kr

접수일자: 2008. 05. 13

수정일자: 2008. 05. 29

계재일자: 2008. 06. 09

